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탄을 느끼는 대목은 전봉준 장군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이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외세의 개입에 의해 좌절되는 사건이다. 썩어빠진 이조봉건사회를 타파하고 밀려 들어오는 외세를 막아내고자 들고 일어섰던 의분의 농민은 40만명.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일어난 이 농민들의 대란은 민비가 들어온 외국군대에 의해 처참히 분쇄되었다. 자신의 일족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의 민중들을 외국군의 총알밥으로 만든 저 민비에게 우리가 품는 희오는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다.

반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선량한 한국 국민들에게 한말의 민비는

술해를 갖다놓아 북한주민을 핵공포에 떨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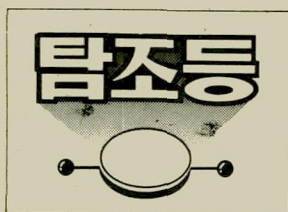
셋째, 그동안 우리 민중운동권은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시종일관 오리발 작전이었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이라나? 자기네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관된 오리발을 자랑하였던 미국이 이제 와서 북한더러 핵사찰을 받으라고 협박하는 것, 이거야말로 뒷골목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미국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에게 무력침공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대목이다. 북한 영토를 헬리콥터로 정찰하겠다는거나, 영변에 건축중인 핵시설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자고 하지 않는가?

미국은 북미대륙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살육하여 남의 안방을 들어차고 산 이래,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민족의 침공을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그들의 후손은 전지구를 유혈로 물들여 왔다. 쿠바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도미니카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은 그 자체만 보면 전



핵사찰 공방이 주는 분노

해방후의 이승만에게서 재연된다고 말하면 선뜻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한가지의 사실을 덧붙이자. 북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어갔던 미국 공군, 여기에 소속된 한 조종사는 “더 이상 목표물이 없다”고 타전하였다. 이북에 사는 한민족이 우리의 한 핏줄임이 틀림없다면, 미군은 한민족에게 그네들의 선조가 인디언을 살육하였을 때 보여준 야수성을 현대적 무기로 재연하였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최근 핵사찰 공방을 보는 전제이다. 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핵사찰 공방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해 네 차례의 분노에 떨었다.

첫째, 북한에는 아직까지 핵무기가 없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이다. 가공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대해 “위험한 불장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떠드는 이러한 작태를 우리는 무어라 표현해야 좋을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은 뻔뻔한 미국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너무 적잖다.

둘째, 지금처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 하나의 부담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원인 제공한 당사자는 누구였던가? 한국땅에 1천여기의 전



정인

〈노동운동가〉

광팬들에게나 볼 수 있는 강자의 거드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넷째, 미국의 전술핵 철수를 전제로 한 핵사찰 협박은 “밀쳐봐야 이익”이라는 타산의 산물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군의 핵무기는 그 용도가 무산된다. 그래서 남한의 미군 핵무기를 가져갈테니,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사찰을 강요하는 “평화주의적 태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어 이익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은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위협할 수 있어 이익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평먹고 알먹고라고 했는가?

진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언제라도 미국의 비행기와 대기 핵무기를 실어다 북한땅을 쳐부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 절름발이 선언이다. 비핵화선언은 미군의 완전 철수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보호까지를 배제하는 비핵지대의 선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같은 민족의 목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체제는 이제 사실상 무너졌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냉전의 유물을 “고정불변의 철칙”으로 체념해야 하는가? 20대의 젊은이들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무용한 노동으로 3년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서 우리의 분단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올해의 군사비는 무려 6조원에 달한다. 왜 이 막대한 자금을 휴전선에 쏟아부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사정이다. 북의 사정을 보면 더욱 처참하다. 매년마다 군사비로 나라경제의 30%를 허비해야 하는 북한은 이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끝나지 않는 한, 인민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할 무엇을 잃고 산다.

아, 언제나 우리는 “미군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부르짖어 왔지만, 정말로 맞을 것인가?